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

첸리훤과 왕후이의 경우*

이옥연**

요약

이 연구는 2011년 이후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대표적 지식인인 첸리훤과 왕후이 사이에서 일어난 대립과 분화를 중심으로, 최근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사람의 분화와 대립의 핵심을 마오 유산의 의미와 중공당 및 중국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첸리훤은 중국의 문제를 마오 시대의 유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마오 시대를 청산하는 것을 중국의 주요 과제로 삼는 반면, 왕후이의 경우 자본화된 중국, 시장화된 중국을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첸리훤에게 중국 정부는 전제국가로서 가능성이 닫혀 있지만, 왕후이의 경우 미국 중심의 근대 세계 체제를 극복하려는 열망, 그리고 서구와 다른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까닭에 좌파 민족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중국 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첸리훤, 왕후이 중국 지식인, 마오쩌둥, 총칭 사건, 마오쩌둥, 보시라이, 신좌파

* 이 연구는 2011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SRF-201114002.01)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I. 머리말 : 첸리첸의 왕후이 비판

첸리첸(錢理群, 1939년생)과 왕후이(汪暉, 1959년생)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루쉰(魯迅)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중국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연령으로 보면 왕후이가 한 세대 아래이지만, 이들 두 사람은 루쉰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중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는 점에서도 나이를 뛰어 넘는 우정과 연대를 견지하여 왔다. 루쉰 연구 차원에서도 선 후배 관계이고, 인간적으로도 둘의 관계는 각별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첸리첸이 왕후이를 비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분화와 대립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의 분화는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자면 첸리첸이 왕후이를 비판한 것은 의외로 보인다. 첸리첸은 2010년 왕후이가 이른바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려 곤경에 처해 있을 때도 적극 나서서 왕후이를 옹호하였다. 그런데 첸리첸이 2011년 연말에 왕후이를 비롯한 신좌파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대한 편향된 인식 속에서 관방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가주의자로 변하였다고 비판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 사이의 대립이 중국 지식인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첸리첸과 왕후이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이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대립이 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분화를 상징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첸리첸이 왕후이 개인의 품성이나 인격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신좌파 리더인 왕후이의 사상과 중국 현실 및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인식에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은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중국 현실과 중국 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을 어떻게 변혁할 것인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분화에는 보시라이(薄熙來)가 주도한 ‘충칭(重慶) 실험’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평

가는 물론이거니와 마오쩌둥 시대와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평가, 중공당과 중국 정부에 대한 평가, 중국 변혁의 방향 등 현재 중국 지식인 사회의 민감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첸리훤과 왕후이 두 사람의 분화와 대립은 두 사람만의 사적인 차원을 넘어 2000년대 이후 중국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지식인 사회는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중국 현실을 배경으로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첸리훤이 중국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를 두고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한 이후 네거리에 도달하여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의 문제를 두고 중국사회의 중간층에 속한 지식인들이 2010년에 급격히 분화하고 있다”고(錢理群 2011) 지적한 것도 중국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개혁개방 시대인 1980년대에 계몽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였던 중국 지식인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주의와 신좌파로 분화하였고, 중국 부흥과 중국 굴기(崛起)가 회자되는 G2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화의 기저에는 중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중국 미래 전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가 2000년대 이후의 중국 현실과, 특히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면서 G2의 주역이 된 중국의 새로운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할 때, 중국 지식인 사회의 분화를 추동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새로운 변화 양상은 무엇인가? 우선,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들어선 이후 성장 위주의 정책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내수와 민생을 중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보호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가 경제 정책에서 이전보다 ‘좌’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에 직면하여 침체를 맞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고, 상하이 엑스포와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후진타오 체제 10년 동안 G2로 성장한 중국 앞에서 중국 정부가 내건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는 구호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는 것

을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들도 실감할 정도였다. 민족적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아졌고, 이런 가운데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구와 다른 중국적 가치와 중국적 경험, 중국의 길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다.

이런 중국 현실 변화를 배경으로 중국 지식인 사회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중국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그 흐름의 양상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許紀霖 2012, 355-357). 첫째 신좌파의 약진과 자유주의의 쇠퇴, 둘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의 확대, 셋째 중국 전통 가치와 전통 제도를 재평가하는 전통주의 흐름의 확대, 넷째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중국 경험과 중국 가치, 중국 특성 등, 이른바 중국 본토성(本土性)을 강조하는 흐름의 확대 등이다. 요약하자면, 중국이 G2 주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크게 보아 민족주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중국 모델론에서 보듯이 전통과 근대성(modernity)을 재평가하고 서구와 다른 중국의 길을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지식인 사회의 이러한 흐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식인 그룹이 신좌파이다. 신좌파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중국의 흐름에서 신좌파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중국 사회의 주요 경향 중 많은 부분이 신좌파가 주장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서구와 다른 대안적 발전 모델 모색, 중국 경험과 특수성 중시 등은 신좌파의 대표적 주장이었다. 그런가 하면 후진타오 정부는 내수를 중시하면서 의료 보장 체제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이른바 ‘약세집단(弱勢集團)’에 대한 보호 정책을 내놓으면서 신좌파의 주장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보시라이의 ‘충칭 실험’이 시행되고 여기에 추이쯔옌(崔之元) 등 신좌파의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등, 중국에서 지적 담론 차원에서나 정책 차원에서도 신좌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신좌파는 주류 담론에 맞선 비판 세력이었으나 후진타오 시대에는 정부의 ‘싱크 탱크’로 변하여 관방 이

데올로기의 대변자가 되었고, 국가주의자로 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왕후이와 신좌파 그룹 지식인들이 관방파로 변질되었다거나 국가주의자가 되었다는 비판은 후진타오 시대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자유주의 지식인 중 한 사람인 쉬지린(許紀霖)은 신좌파의 국가주의 경도를 나치 시대와 비교하면서 왕후이의 전향을 비판하였다. 쉬지린은 먼저, 최근 10년 사이 중국 지식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국가주의 사조가 대두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좌익이든 보수 진영이든 국가주의 사조가 중국 사상계에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각 영역에서 국가의 지고무상의 핵심적 지위를 강조하는” 국가주의는 민족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관방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갈수록 접근해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1930년대 독일과 일본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국가주의가 득세하면 민족 전체가 재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하는데, 그의 우려는 국가주의가 중국 현실에서 대규모로 실천될 가능성마저 보인다는 데 있다. 이른바 ‘혁명가요 부르기와 부조리 척결(唱紅打黑)’ 운동을 벌이고 있는 충칭 등 일부 지역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요컨대, 쉬지린은 최근 중국 사상계에는 과거 일본과 독일에서 유행하였던 국가주의라는 위험한 지적 조류가 대두하고 있고, 그 대표적 사례가 충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충칭 모델’이며, 왕후이는 ‘비판적 지식인’에서 국가주의로 ‘전향’한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許紀霖 2011). 국가주의 조류와 신좌파, 충칭 모델에 대한 비판, 신좌파의 대표적 학자인 왕후이에 대한 비판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쉬지린의 신좌파와 왕후이에 대한 비판은 쉬지린의 자유주의 경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신좌파’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 추앙받는 첸리쑤이 신좌파와 왕후이를 비판한 것은 그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다. 두 사람 사이의 각별한 관계는 첸리쑤이 왕후이를 비판하면서, 왕후이는 ‘오랜 친구’이자 80년대 계몽

주의의 ‘전우’였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변한 느낌”이라고(錢理群 2011) 표현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오랜 학문적 동지이자 나이를 떠난 ‘친구’였던 그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첸리췌의 비판은 왕후이에게 무척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첸리췌는 신좌파와 왕후이가 국가주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고, 마오 시대를 잘못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마오 시대가 개혁개방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굴기하는데 중국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錢理群 2011). 첸리췌의 비판은 왕후이와 첸리췌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왕후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중국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첸리췌와 왕후이 사이의 분화와 대립이 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중국 변혁 전망은 물론이거니와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현안을 망라하는 등 공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이 분화와 대립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은 G2 주역으로 부상한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를 마감하고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중국 지식인 사회에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쟁점과 새로운 분화를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연구가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다. 이 연구는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비판적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였던 첸리췌와 왕후이 두 사람 사이에 최근에 형성된 의견 대립과 분화를 중심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분화를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를 상징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2007년 17차 중국 공산당 대회와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른바 보시라이의 ‘충칭 실험’ 이전까지 중국 현실 인식에서 비교적 입장을 같이하던 첸리췌와 왕후이 두 사람의 분화를 중국이 G2대국으로 부상하고 ‘충칭 실험’이 시행과 좌절을 겪는 중국 현실을 배경으로 일어난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첸리췌와 왕후이 사이의 대립과 분화는 중국에서만 아니라 한국에서

도 연구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둘의 분화와 대립의 원인을 두고 크게 세 가지 분석이 있어 왔다. 첫째는 두 사람의 분화의 원인을 왕후이의 국가주의 경향에서 찾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 첸리첸과 자유주의자들이 왕후이를 비롯한 신좌파를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에서 왕후이가 비판적 지식인의 자세를 잃고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으로 기울어 갔고, 이에 대해 비판적 지식인인 첸리첸이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백승욱의 평가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백승욱(2011, 303)은 국내에 번역 소개된 왕후이의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¹⁾이란 글을 평하면서, “1990년대 중국에서 신자유주의 논쟁을 주도하던 왕후이가 어디로 간 것인지 곤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백승욱(2012, 35-44)은 왕후이에게서 느끼는 이런 곤혹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왕후이의 독서 속에서 찾을 수 없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첸리첸의 글”을 평가하고, “왕후이가 최근 몇 년 보여준 행보”와 대비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첸리첸에게서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성근제(2012, 104)는 왕후이 입장에서 첸리첸의 현실 인식의 단순함을 비판한다. 첸리첸이 ‘권력과 지식인’ ‘독재 vs 민주’ ‘국가 vs 저항 지식인’이라는 ‘권력에 맞서는 올곧은 지식인’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마오쩌둥 시대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 두 사람 사이의 분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성근제는 나아가 첸리첸의 시각은 “전형적인 지식인적 관점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이며, 나아가 상당 정도 냉전적인 관점이기도 하다”고 첸리첸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위의 두 가지 관점에 비해 류준필은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의 원인을 두 사람이 지닌 ‘역사적 중간물’ 의식의 차이에서 찾았고, 두 사람에게는 국가에 대한 입장에서 사상과 현실 실천 사이에서 비슷한 곤혹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류준필 2012, 181-197).

1) 원제는 “中國崛起的經驗及其面臨的挑戰”(『文化縱橫』2010年2期, 2010.4. 24-35면)으로, 번역본이 『황해문화』2011년 여름호(47-70면)에 실렸다.

첸리쥔과 왕후이 둘의 분화와 대립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이 연구는 한 사람 입장에서 다른 한 사람을 비판하는데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의 쟁점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첸리쥔과 왕후이 사이에서 일어난 분화의 쟁점을 마오쩌둥 시대와 ‘충칭 실험’에 대한 평가의 차이, 그리고 중공당과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로 파악한다. 두 사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이 첸리쥔이 왕후이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먼저 첸리쥔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첸리쥔의 현실 인식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첸리쥔과 왕후이 사이의 분화를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 및 중국의 변혁 전망과 관련된 분화라고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사람을 상호 대비추어 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인식이 갖는 의의와 한계도 점검할 것이다. 크게 보자면 이 연구는 첸리쥔과 왕후이 사이의 분화와 대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현재 쟁점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사상적 지형도를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II. 무엇이 쟁점인가?

1. 마오쩌둥과 ‘충칭 실험’에 대한 평가

첸리쥔은 베이징 대학에서 퇴직한 이후 문화대혁명을 포함하여 마오쩌둥 사상과 마오쩌둥 문화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그가 최근에 쏟아내고 있는 여러 저작들을 관통하는 기본 주제는 마오 사상과 마오 문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다. 첸리쥔은 자신은 마오쩌둥 사상과 마오쩌둥 시대의 산물인 동시에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모반

자”라면서, 마오쩌둥에 대해 “가장 철저한 정리와 비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한다.

저는 마오쩌둥 시대가 만들어냈고 마오쩌둥 문화가 혈육과 영혼 속에 스며들어, 아무리 발버둥치고 자성하고 비판해도 여전히 구제불능인 이상주의자, 낭만주의자, 유토피아주의자입니다. 이러한 마오쩌둥 시대의 각인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저는 마오쩌둥 시대의 목적의식적인 모반자입니다. 저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창끝을 되돌려 마오쩌둥에 대해 동시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정리와 비판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철저한 모반자가 되도록 힘씁니다(전리군 2012, 21).

“마오쩌둥 문화가 혈육과 영혼에 스며들어” 있다는 그가 “창끝을 되돌려” 마오에 대한 비판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첸리췌의 마오 시대 비판은 대부분 그가 몸소 겪은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자신의 체험과 방대한 사료를 결합시켜 마오 시대를 해명하는 독자적 이론 틀을 정립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여느 비판과 다른 독특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첸리췌가 마오 시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개념이 이른바 ‘57체제’론이다. 첸리췌는 마오가 신민주주의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개조로 나아간 뒤부터 역사적 파행이 시작되었고, 1957년 반우파 투쟁을 계기로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인 이른바 ‘57체제’가 수립되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57체제’는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줄을 다시 세우고 계급 대오를 다시 조직한다.” 즉 계급과 성분에 따라 좌파에서부터 우파까지 정치적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다. 둘째, “대권을 독점하는 당의 일원화된 지도체제”다. 이는 민주집중제로 표현되며 중공당, 특히 당중앙과 당의 1인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다. 셋째, ‘흥무멸자(興無滅資)’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건립한 점이다. “이른바 ‘흥무멸자’란 프롤레타리아계급 사상을 흥하게 하고

부르주아계급 사상을 멸한다는 것”이다. 넷째, “부단히 대립 면을 설정하고 계급투쟁을 만들어내 ‘부단혁명’이라는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치국의 기본적인 방침과 책략으로 삼는 것”이다(전리군 2012, 228-251).

그런데 첸리췌이 보기에, 마오 시대를 상징하는 ‘57년 체제’는 마오 시대의 종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마오는 죽었지만, ‘57체제’에 기반을 둔 통치 시스템과 ‘마오쩌둥 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마오쩌둥 문화라는 개념을 제기하는 것은 마오 사상이 일종의 민족성(국민성)이자 한 시대의 문화와 정신이 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인의 사유방식, 정감방식, 행위방식, 언어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었고, 나아가 민족정신, 성격, 기질에도 그것이 아주 깊이 각인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중국인들은 “중국 전통의 유(儒), 도(道), 묵(墨), 법(法) 등 이외에 중국 대륙은 마오쩌둥 문화를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고(전리군 2012, 26) 말한다. 그런가 하면 마오쩌둥 문화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만약 마오쩌둥 시대가 형성한 새로운 국민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문화대혁명과 같은 마오쩌둥 시대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전리군 2012, 27) 말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 글에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은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라거나(첸리췌 외 2012)²⁾ “마오쩌둥의 유령이 여전히 중국 대륙을 배회하고 있다”거나(첸리췌 2012, 206), “마오쩌둥이 가져온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라든가(전리군 2012, 34), “역사의 죄악을 신령스러운 무엇으로 새롭게 떠받들며 또 다른 형식으로 재포장하여 20세기의 역사 비극을 되풀이 하려 한다”(첸리췌 2012, 95) 등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대의 유령이 지금도 배회하고 있고, 문화 대혁명(이하 ‘문혁’으로 약함)과 같은 마오 시대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중국 현실에 대한 그의

2) 『경향신문』 2012년 9월 19일자는 첸리췌의 저서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출간을 계기로 첸리췌와 백승욱의 대담을 소개하였다.

인식은 마오 시대 부활을 야기할 수 있는 현재 중국의 정치 현실 및 사상 조류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진전된다. 그는 마오 사상과 마오 문화를 체화한 세대가 중국 정치와 사회, 사상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지금 중국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 “이러한 [문혁 방식-인용자] 운동의 장기적 주입과 은연중의 감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 지금 대륙 중국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교육 학술 등 각 영역과 나아가 반대 세력 속의 실제적 지도 역량과 중견 역량이 되고 있다”는(첸리췌 2012, 27) 것이다.

중국 사상계 분화와 관련하여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첸리췌의 “2010년을 돌아보며(回顧2010年)”라는 글 역시 그의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2010년 시점에서 중국의 정치 현실과 중국 사상계의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판을 가한다. 이 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으로, 1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 정치 상황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는 첸리췌가 왕후이를 비판하고 신좌파의 국가주의 조류를 비판하는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첸리췌의 이 글은 첸리췌 개인의 시국선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첸리췌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2011년 5월 시점에서 중국 지식인 사회를 포함하여 당시 중국 현실 정세에 대한 분석 및 미래에 대한 우려와 초조, 그리고 분노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앞서 첸리췌는 2010년 중국 지식인의 분화를 거론하면서, 이 분화는 1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투쟁을 배경으로 하거나 당내 투쟁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의 글 역시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첸리췌는 2007년 17차 당 대회 이후 중공당 당내에서 ‘마오쩌둥파’와 ‘민주파’로 분화가 일어났다고(錢理群 2012, 326-332) 진단한 가운데, 2010년 10월 중공당 17차 제5기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을 차기 지도자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는 시진핑 시대의 성격과 관련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시대가 문혁 기간에 대학생이었던 그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시대라면, 다가올 시진핑 시대는 문혁 기간 동안 홍위병과 지식청년이었으며 고급 간부의 자제들인 이들이 지도권을 잡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홍위병 세대인 시진핑 시대를 매우 우려한다. 왜냐하면, 시진핑 세대는 “오직 좌파 혁명, 우파 혁명 금지!”라는 구호를 외치고 “간부 자녀가 당권을 잡으면 천하는 우리 것이다”, “너희들이 혁명을 하면 우리는 즉시 진압할 것이다”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것이며, 문제는 그것이 “끓었을 적 ‘미친 소리(狂言)’일 뿐만 아니라 “그들 몸에 배서 40, 50년 이후 오늘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첸리쉰은 “그들이 당시 ‘마오쩌둥의 홍위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와 태도가 어떠한든 그들 성장 초기에 마오쩌둥에게 받은 암묵적 영향은 소홀히 볼 수 없고”, “문혁 시기 잔인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고와 보스 기질, 그리고 건달 기질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錢理群 2011).

첸리쉰이 보기에 보시라이가 추진한 충칭 모델은 마오 시대의 부활을 예감하는 시진핑 시대의 전조다. 보시라이의 ‘홍색 충칭’을 두고 첸리쉰은 이 데올로기와 사회분위기 차원에서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자 마오쩌둥의 계급투쟁 방식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한다. 첸리쉰이 보기에 “마오쩌둥의 정치 유산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면서” 마오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충칭 모델인데, 시진핑은 충칭을 시찰하고 충칭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첸리쉰이 이런 진단을 한 2011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2012년 보시라이가 이미 당에서 제명된 시점에서 보자면 첸리쉰의 우려는 해소된 셈이고, ‘충칭 실험’을 문혁의 부활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자바오의 언급과 일치한다. 중국 공산당의 최근 흐름에 대한 첸리쉰의 이러한 분석 때문에, 성근제(2011, 114)는 첸리쉰이 왕후이 주장을 ‘오독’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오독’이 일어난 배경으로 “당 내부에서 신좌파 계열의 견해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세력 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지

적하기도 하였다. 첸리훤의 시진핑 시대에 대한 우려는 충칭 모델에서 보듯이 문혁 홍위병 세대들이 국가의 주요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문혁 시대와 같은 사회분위기와 계급투쟁 방식, 그리고 인민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경계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충칭 실험’에 대한 평가는 첸리훤과 왕후이 사이에 중국 현실 인식 차원과 미래 전망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살펴 본대로 첸리훤은 ‘충칭 실험’을 마오 시대의 부활 조짐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하였다. 하지만 충칭의 실험과 충칭 사건에 대한 왕후이의 평가는 첸리훤과 큰 차이가 있다. 왕후이는 보시라이가 체포되는 이른바 ‘충칭 사건’이 나고 쓴 글에서 ‘충칭 실험’을 기존 발전모델을 넘어서려는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기존의 중국 체제와 발전모델을 넘어서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 하에서 충칭 실험은 지방 당정 기구의 조직과 추동, 군중의 적극적 참여, 지식계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 추진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국부적 개혁이었다. 이러한 충칭의 개혁과 실험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견해와 평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이 개혁이 일종의 공개적 정치였으며, 민중의 참여를 지향하는 개방적 민주주의 실험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개혁개방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혁 실험이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왕후이 2012, 160).

왕후이는 기본적으로 ‘충칭 실험’을 기존의 발전모델, 요컨대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넘어서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충칭의 개혁 실험이 전개된 기간은 우연찮게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왕후이 2012, 171) 말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어나던 시점, 왕후이 표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이데올

로기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왕후이 2012, 171) 즈음에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넘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는 실험으로서 ‘충칭 실험’에 의미를 부여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왕후이는 보시라이가 실각한 ‘충칭 사변’은 중공당과 중국 정부가 왕리권(王立軍) 사건이라는 ‘개별 사건’을 ‘충칭 실험’과 연결시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기 위한 일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 본질을 규정한다. “왕리권의 미국 영사관 진입이라는 개별적 사건을 ‘충칭 실험’에 대한 평가에 끌어다 붙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 비극을 재연하는 것으로까지 문제를 확장시켰고 제11기 3중전회가 확정한 기본 노선과 역사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결의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충칭 실험’이 개혁 노선의 궤도를 벗어난 중대한 정치적 오류인 듯한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다(왕후이 2012, 172). 또한 왕후이는 『난팡저우모(南方週末)』 등 이른바 ‘난팡(南方)’ 계열의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문혁이라는 주문을 외워서 사상적 토론을 압살하고 정치적 적수를 공격하며, 심지어 정치적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고(왕후이 2012, 176) 격하게 비판한다. ‘충칭 실험’과 충칭 사건을 보는 시각에서 첸리춘과 왕후이는 거의 대척점(對蹠點)에서 있는 것이다. 왕후이가 ‘충칭 실험’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충칭 실험’이 왕후이가 보기에 이미 한계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넘어선 대안적 발전 모델을 실험하였다고 보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자바오를 비롯한 중공당과 중국 정부 지도자들은 이를 문혁을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여 폭력적으로 탄압한 뒤,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왕후이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이다.

‘충칭 실험’을 평가하는 왕후이의 시각에서 보듯이, 왕후이의 현실인식의 핵심은 중국에서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의 극복과 새로운 발전 모델 모색에 있다. 왕후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서구 근대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중국에 이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중국 사회의 문제는 마오 사상과 사회주

의 유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본화와 시장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왕후이가 “마르크스주의만이 유일한 사상적 지주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1990년대 중국 현실에서 자본이 ‘무소부재(無所不在)’하고 ‘사회생활 각 모퉁이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 운동에 대한 분석을 방기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는 것은(汪暉 1998, 16) 그가 중국 현실 문제의 핵심을 중국의 자본화, 시장화로 보기 때문이다.

왕후이가 ‘충칭 실험’을 평가하는 것에서 보듯이, 왕후이의 현실인식과 변혁전망은 중국의 자본화와 시장화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그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기하고 있는 대안적 근대성, 다원적 근대성 모색이라는 지적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왕후이는 그가 추구하는 “다원적 근대성이란 한편으로는 현대의 여러 가지 불가피함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전통과 사회 조건 속에서 출현하였던 다른 근대 모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汪暉 2008, 8). 그가 마오 사상과 마오 사회주의 시대를 ‘반근대성적 근대성’ 또는 ‘반자본주의 근대화의 근대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다. 근대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근대를 극복하려는 사상과 그 과정이 마오의 사상과 마오 시대 사회주의이고, 이는 기실 루쉰 이후 중국 근현대 지식인의 모색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내가 제기하였던 ‘반근대성적 근대성’의 문제는 중국의 경우 현대성에 대한 비판(실제로는 대안적 현대성)이 만청(晩淸) 때부터 있었고 장 타이엔(張太炎), 루쉰, 양수밍(梁漱冥) 등도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해 비판하였고, 그러한 비판에는 고전적 지혜가 안에 들어 있었다. 당시의 사회주의운동 자체도 반근대적 근대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운동은 근대를 계승한 것이고, 그것의 시간관이나 기본적 가치관은 근대성과 완전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서구 자본주의와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였고 유사한 과정이 모든 사회 영역에 침투되어 있

다(汪暉 2008, 9).

그런데 왕후이가 추구하는 대안적 근대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안적 근대성을 추구하는 왕후이의 변혁 전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근대질서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왕후이는 “근대를 철저히 문제로 삼아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패권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汪暉 2008, 9). 반서구 패권에 대한 저항이 대안적 근대 모색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첸리첸이 비판하는 왕후이의 민족주의(국가주의)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중국의 굴기가 미국 중심의 서구 패권 구조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대안 모색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시점에서 그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왕후이는 “중국 굴기의 다른 중요한 성취는 세계적인 패권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면서, “미국 패권의 쇠락은 분명 중국의 굴기와 관련 있다”고 말한다. “긴 문명사를 지니고 있고, 근대 1백여 년간 그렇게 고통스런 모색의 기간”을 지닌 중국이라면 의당 현재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汪暉 2008, 9). 왕후이의 대안적 근대 모색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극복을 전제하는 한 왕후이의 지적, 실천적 모색은 좌파 민족주의와 만날 소지가 다분하고, 이 지점에서 첸리첸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다. 왕후이의 신자유주의 비판이 신자유주의를 매개로 한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의 공모를 지적할 때는 반정부적일 수 있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미국 중심의 서구 패권주의 세계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거점으로 인식할 때 좌파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첸리첸의 비판은 바로 후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첸리첸과 왕후이는 마오 시대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첸리첸은 마오 시대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강조하고, 지금 중국 현실의 모순은 마오 시대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잔존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며, 마오 유산이 중국 현실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하지

만 왕후이는 대안적 근대성 모색 차원에서 마오 시대의 합리적 요소의 재발굴을 강조한다.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첸리췌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중국 현실 모순의 궁극적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차원에서만 보자면 첸리췌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있고, 왕후이는 전형적인 신좌파의 입장을 대변한다.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신좌파 지식인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이 중국 현실 모순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있고,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경우 중국 현실 문제를 마오 시대 사회주의 유산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신좌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화, 자본화 때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그렇다.³⁾

2. 중공당과 중국 정부에 대한 평가

마오 사상과 마오 시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첸리췌이 왕후이의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왕후이를 비판하는 또 다른 쟁점은 중공당과 중국 정부를 보는 관점이다. 첸리췌는 왕후이가 세 가지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 왕후이는 중국 정부를 중성정부 혹은 중성국가로 보고, 이것이 개혁개방이 성공한 전제라고 보고 있다. 둘째, 왕후이는 중공당 내부에 자기수정의 기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왕후이는 정당국가화, 이른바 ‘당-국체제(黨國體制)’를 옹호하고 있다. 첸리췌는 왕후이가 “당이 곧 국가인 정당국가화를 극력 찬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신좌파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신좌파가 갈수록 집권세력의 ‘싱크탱크’가 되고 있고”, 이는 “그들의 갈수록 강해지는 국가주의 정서의 필연적 선택”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왕후이는 첸리췌가 자신의 주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

3) 신좌파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중국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許紀霖·羅崗 2007, 201 참조.

한다. 무엇보다 당-국가 체제는 왕후이가 가장 역점으로 두어 비판하는 점이며, 중성정부론 역시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대다수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당과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 중성정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인데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첸리훤이 오독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것이다.⁴⁾ 왕후이는 현재 중국에서 국가의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당-국가화는 장기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왕후이에 따르면 원래의 당-국가 체제가 지금은 국가-당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전자가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 후자는 오직 권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주장하고, 이런 흐름이 탈정치화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는 이제 ‘정치가 없는 국가, 혹은 탈정치화 국가’가 되었다고 본다(汪暉 2008, 7-8). 왕후이의 개혁개방 서사를 분석한 이종민(2012, 130)의 지적대로, 왕후이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비판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은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고 갈수록 국가기관과 혼합된 당-국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문혁과 관련하여, 첸리훤이 마오쩌둥 개인 사상에서 주로 그 원인을 찾는데 비해 왕후이는 문혁의 발발 동기 역시 정당의 국가화 과정에서 찾는다. 중공당이 정치기능을 상실하고 국가의 관료주의와 권력화가 공고해지는 상황, 그리고 정당의 국가화 과정에서 사회적 동원을 통해서, 즉 당-국가 밖에서 정치 영역과 정치 가치를 촉발시켜 대중 참여를 통해서 민주를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혁명 정당의 정치적 가치를 다시금 들고 나온 것이고, 사회운동과 정치 논쟁을 통해 정당과 국가의 절대 권위를 타파하려 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첸리훤의 주장과는 달리, 왕후이는 당-국가 체제를 “극력

4) 필자가 왕후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 2012년 8월 13일 칭화대(淸華大) 왕후이 연구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가 체제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첸리훤은 그러한 당-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책임을 묻는데 치중한다면, 왕후이는 마오가 대중의 참여와 대중동원의 방식으로 당-국가 체제에 충격을 주었던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물론 그의 이러한 대중동원으로 국가-당 체제에 충격을 주려고 한 동기의 한편에는 개인숭배의 욕망도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왕후이는 1957년 이후 중국 정치에서 관료기구가 확대되고, 엘리트층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당과 국가가 기층민중과 유리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를 두고 마오가 당시 중공당과 중국 정부를 비판하였던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오가 사용하였던 대중 참여형 민주주의와 동원 기제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 왕후이가 문혁 초기의 4대 자유 즉, ‘크게 외치고(大鳴), 크게 발표하고(大放), 크게 논쟁하고(大辯論), 대자보를 붙이는(大字報)’ 4대 자유를 높게 평가하고, 덩샤오핑 정권이 이를 헌법에서 삭제한 것을 비판하는 것도(汪暉 2008, 4) 이런 맥락에서다. 왕후이는 마오가 당-국가 체제가 성립하면서 관료주의와 국가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부단히 공고해지면서 억압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에 충격을 주기 위하여 참여 민주 방식의 대중동원 방법으로 다시 정치화를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⁵⁾

사실 왕후이의 이러한 시각은 마오쩌둥 사상과 실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대중(인민) 민주주의와 대중노선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도가

5) 이 글의 범위를 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첸리훤이 반우파투쟁에서 문혁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모든 문제를 마오 개인의 사상과 인격, 개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당시 중공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마오와 비마오파 사이의 갈등에 주목하지 않는다. 첸리훤의 분석에는 1956년 당시 마오가 이미 당내 실권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나, 마오가 공산당의 변질을 우려하고 관료주의를 악으로 보는 가운데 억압적 국가기구의 수립,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의 확대 등의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당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대립하였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다. 마오와 비마오파 사이의 대립을 발전방식에 대한 차이로 보는 관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점에 주목할 때 마오 시대의 대중 참여형 민주에 주목하는 왕후이의 관점은 반우파투쟁 시기부터 문혁 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마오와 비마오파 사이의 대립 속에서 분석하는 모리스 마이스너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다. 모리스 마이스너의 관점에 대해서는 모리스 마이스너 2004, 223-356 참조.

다. 당-국가 체제의 중국은 물론이고 다당제 서구에서도 정당이 탈정치화되고 국가 권력은 갈수록 공고해지며 당의 관료화는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정당과 국가가 특정 계층의 이익만 대변할 뿐 노동자 같은 약자나 인민 보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와 정치의 실종, 민주 위기 등의 상황을 대중 참여형 민주주의와 대중 노선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왕후이는 문혁의 비극이 초래된 것은 과잉 정치화 때문이 아니라 정당 정치 자체의 탈정치화 때문이라고 본다(賀桂梅 2010, 200). 그가 인민 민주주의를 독재 정치와 등치시키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시각은 냉전적 적대 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汪暉 2011a, 66). 왕후이는 인민 민주주의를 탈정치화를 극복하는 계기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현정(2012, 26)이 마오쩌둥 ‘인민 내부의 모순’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마오가 인민 내부의 모순을 처리하는 방식은 “왕후이가 말하는 자기 부정적 정치형식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한 것은 왕후이가 ‘탈정치화’ 극복을 위한 사상적 차원으로 마오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중공당과 중국 정부의 자기 교정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첸리췌는 중공당과 정부의 자기 교정 능력에 대한 왕후이의 언급을 비판하면서, 만약 중공당과 중국 정부가 자기 교정 능력이 있었다면, 문혁 후기부터 6·4천안문사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민중은 물론 당의 간부까지 잘못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다고 되묻는다(錢理群 2011). 이에 대해 왕후이는 최근에 발표한 여러 글과 인터뷰에서 중국 지식인 사회는 물론 당 내부의 이론투쟁과 노선투쟁이 자기 교정 기능을 해왔다고 점을 강조한다. 왕후이는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중국 정부는 늘 민중의 불만 정서를 억누르고 있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 문제를 다당제 민주제인지 일당제인지라는 형식적 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汪暉 2011b, 13). 그에 따르면 국가의

능력은 무엇보다 국가가 사회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인데, 중국 정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반응 능력이 빠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느리다고 말한다. 그는 반응 능력이 빠르다는 것을 형식 분석의 틀을 떠나서 보면 그 사회에 민주적 요소와 잠재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汪暉 2011c). 왕후이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요소와 잠재력은 지식인 사회의 논쟁과 당내 이론투쟁 및 노선투쟁이다. 이러한 것들이 중공당과 중국 정부가 사회적 요구와 민의를 수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를 착오 정정 기제라고 말하지만 이론 논쟁과 노선 논쟁 역시 착오 정정 기제이다”면서, 민주주의가 차단된 상태에서 당내에서 일어났던 이론투쟁, 노선투쟁이 그러한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 교정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때도 그러했고 1990년대 이후 삼농(三農)문제에 대한 관심, 2003년 이후 의료개혁, 2005년 국유기업 개혁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공평’을 중시하고 ‘민생’을 중시하는 최근의 정책까지 당과 국가 정책이 조정된 것은 이론 논쟁 사회적 토론이 전체 방향 설정에서 큰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汪暉 2010, 26).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그는 다당제라고 하더라도 공공 정책의 조정과정에서 민중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 능력이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汪暉 2011c, 13).

그런데 왕후이는 중공당과 정부의 이러한 자기 교정 능력도 과거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 왕후이는 “사회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층의 민의를 살피 적시에 정책을 조정한 것이 원래 후진타오-원자바오 신정치”였지만, “권력의 기틀이 안정되고”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이 담보상태에 머무르며”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 국가 시스템의 관료화가 전에 없던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 특히 충칭 사건은 그 단적인 예다. 왕후이는 원자바오가 ‘충칭 실험’을 문혁을 부활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충칭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개혁 내부에 서로 다른 노선이 존재하고 있음이 설명되

었다”면서 “문제는 개혁과 반개혁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노선 사이의 투쟁이다”고 말한다. 이어서, 왕후이는 “서로 다른 노선과 가치 사이의 공개적 토론과 논쟁은 중국 사회를 성공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제”인데, 원자바오는 충칭의 실험을 “문혁이라는 주문을 외워 사상적 토론을 압살하고 정치적 적수를 공격하며, 심지어 정치적 박해를 자행하였다”고 비판한다(왕후이 2012, 176-177). 왕후이는 충칭사건을, 그가 당-국가 체제를 비판하면서 지적하였던 이론투쟁과 노선투쟁이 실종된 가운데 압제와 회피, 그리고 반대파를 ‘무참하게 타격’하는 방식의 권력 기제를 동원하여 당내 의지를 통일시키는 전형적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汪暉 2008, 17).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왕후이는 대다수 신좌파 학자들이 그러하듯이 국가가 특정 계층, 특히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중공당과 중국 정부에 대한 왕후이의 비판과 불만은 정부의 역할이 과도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중공당과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왕후이는 중공당과 정부의 자주적 능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하는데, 그것은 “국가의지가 자본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인민 대중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어서” 그러하다고 보며 “국가의 자주성 문제가 바로 민주주의 문제다”고 말한다(汪暉 2011d, 11). 왕후이가 보기에 민주와 강한 국가 능력은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국가의 권위와 대중 민주주의 상호 추동과 상호 협력을 통해 주류계층과 그와 결탁한 지방 정권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黃壽松 外 2012, 48).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왕후이와 신좌파 지식인들이 후진타오 체제가 정책 변화를 보이면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몇몇 지식인들은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첸리춘과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신좌파가 갈수록 국가주의자로 변하고 있고, 중공당과 정부의 싱크 탱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

다. 특히 첸리훤에게, “중국은 실질적으로 경찰과 정보요원들이 통치하는 국가”로서(錢理群 2011), 현재 중국은 “마오쩌둥 사상문화의 수많은 부분은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국 현실의 일당 전제체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전리군 2012, 34). 이런 첸리훤 입장에서 현재의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갖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첸리훤과 왕후이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을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첸리훤은 현재 중국은 마오 시대의 영향이 청산되지 않았으며 지금 중국 공산당은 과거 마오 시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첸리훤은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전일적 원리가 관철되는 집단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제주의 정부이자 집단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첸리훤의 이런 시각에 ‘국가와 대립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첸리훤 특유의 사유 구도가 더해지면서 첸리훤에게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어떠한 희망도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왕후이의 경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류준필의 지적대로 왕후이는 국가나 당을 일시불란한 전제주의 정권으로 단순화하지 않으며 그에게 중국 정부와 당은 하나의 전일한 실체가 아니고 국가의 지역시 통일적이지 않다.⁶⁾ 그가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 내부의 노선투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왕후이는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공적 의지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구 근대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6) 국가와 당에 대한 왕후이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류준필은 이는 왕후이가 원래부터 견지해 온 입장으로서, “왕후이의 국가주의적 경향은 처음부터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지 최근에 들어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왕후이의 사상을 국가주의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자칫 중국 지식계 내부 감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첸리훤 역시 왕후이처럼 “사상적 차원에서의 철저한 비판성”과 ‘실천적 차원에서의 타협성’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곤혹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고를 첸리훤의 언급대로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어 거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다면 중국 공산당의 개혁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중국 지식인의 곤경이라고 지적하였다(류준필 2012, 194).

III. 맺음말 : 첸리첸이 선 자리, 왕후이가 선 자리

중국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첸리첸과 왕후이 사이의 분화와 대립에는 중국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변혁할 것인지를 문제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다. 첸리첸에게 지금 중국은 마오 시대의 유제와 마오 문화의 영향이 여전한 전제주의 국가이다. 첸리첸(2012, 24)이 개성 해방과 개인의 자유, 민주와 휴머니즘, 계몽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현실 인식 때문이다. 그에게는 마오 시대의 극복과 전제주의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첸리첸의 저작에서 마오 사상과 마오 문화는 도덕 이상주의, 개인의 부재, 유토피아주의, 인민주의, 전제주의, 노예와 노예-주인 관계의 상호전화라 할 수 있는 대중독재, 계급투쟁에 기초 한 투쟁철학, 중화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표상된다(첸리첸 2012, 52-92). 이러한 마오 사상과 마오 문화의 특징에 비해 첸리첸이 추구하는 가치는 개성해방과 개인의 자유, 민주와 휴머니즘, 계몽주의, 비판지성으로 무장한 참지식인 등으로 표상된다. 마오 시대와 마오 문화의 표상을 극복하고 후자의 표상이 실현되는 중국을 만드는 것이 그의 중국 변혁 구도이다.

첸리첸에 비해 왕후이에게 중국은 시장화 되고 자본화된 중국이고, 중국의 문제는 시장화와 자본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이다. 왕후이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물결과 더불어 추진되는 중국의 시장화, 자본화 및 신자유주의 개혁에 제동을 걸고 대안적 근대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중국 변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왕후이가 마오쩌둥 시대 재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오 사상에서 근대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가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y) 추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을 '반근대성적 근대성' 또는 '반자본주의 근대화의 근대성'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그가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좌파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것은 서구 근대 질서를 넘어서려는

그의 변혁 구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첸리훤과 왕후이 사이의 중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변혁 구도 차이를 감안하자면 보시라이가 주도한 ‘충칭 실험’과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거의 극단적으로 엇갈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첸리훤과 왕후이 사이의 분화와 대립을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식인 사회의 가장 큰 대립 축인 자유주의와 신좌파 사이의 분화와 대립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첸리훤이 현재 중국의 문제를 마오 시대의 잔재 때문으로 보고 마오 시대와 현재 중공당 정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는 점, 정치 민주화와 계몽, 개인의 가치에 대한 강조 등은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첸리훤과 자유주의 지식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첸리훤이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평하면서 지적한 대로, “강권통치에 대한 대다수 자유주의자의 비판과 민주를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엘리트주의와 권력 지향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첸리훤 2012, 243).

그런가 하면 첸리훤은 신좌파 지식인들을 평하면서, “신좌파의 평민의식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옹호”에는 공감하지만, 신좌파의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무비판적 긍정” 태도, 그리고 “강권체제와 애매한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주장에 일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는 제 3의 지점에 서 있는,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보기 드문 위치를 점하는 지식인인 것이다. 그가 자신을 “권력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의 입장에 귀속되기를 거부”하면서, “변방 지식인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첸리훤 2012, 243)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첸리훤은 마오 시대와 마오 문화의 청산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도 사실이다. 그가 마오 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오 개인의 인격과 마오 사상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과 마오 시대와 마오 사상에 대한 본질주의적 청산

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리고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마오주의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크게 보는 반면, 자본화와 시장화로 인해 일어나는 중국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오주의에 대한 경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경계하는 것은 그의 한계이다. 첸리췌 현실인식의 이러한 한계는 그를 자유주의자 쪽에 가깝게 보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왕후이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그가 중국 지식인들 가운데 비교적 앞서서 중국 현실의 문제를 자본화된 중국, 시장화 된 중국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점이 그의 사상적 개성이다. 또한 중국의 문제를 세계 자본주의 문제와 연동하여 파악하고 중국의 대안적 발전의 길과 자본주의 근대 세계 체제 극복을 동시에 사고한다는 점에도 그의 사상적 개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왕후이는 독특한 사상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 그가 마오 사상과 마오 시대에서 합리적 요소를 재발굴하려는 것도 중국과 세계 차원에서 근대 시스템을 넘는 대안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마오 시대에 대한 이해가 첸리췌의 경험적 인식에 비해 이론적이고 추상적 수준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서구 근대 질서 극복과 중국의 신자유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 처방의 차원에서 마오 시대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한 미국 중심의 현 세계질서와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구와 다른 길을 추구한다는 전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역할과 의미를 과대평가하거나 좌파 민족주의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중공당의 의미와 역할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그의 한계이다.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상징인 두 사람의 이러한 입지는, 어찌 보면, 첸리췌와 왕후이 두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이 자신의 강점이 되고 상대방의 강점이 자신의 약점이 되는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러한 관계는 대립적이고, 거기에서 분화와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만 두 사람의 현실 인식이 서로를 거울삼아 보완 관계를 이룬다면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가 한층 성숙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호 보완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비판적 지식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첸리춘과 왕후이 두 사람의 대립과 분화를 조명하는 것은 중국이 G2시대 주역으로 성장한 가운데 중국의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 비판적 지식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 지식인 사회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는

[투 고 일 : 2012년12월31일]

[심사완료일 : 2013년01월17일]

[게재확정일 : 2013년01월21일]

참고문헌

- 류준필 (Ryu, Jun-pil). 2012. “곤혹과 悖論: 첸리췌의 중국 사회주의 인식에 대하여.” (Gonhok-gwa Paeron: Qian Liqun-ui Jungguk Sahoe Juui Insik-e Daehayeo) 『한국학연구』 (Hangukhak Yeongu) 27: 181-189.
- 모리스 마이스너 (Meisner, Maurice). 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Mao-ui Jungguk-gwa geu Ihu 1). 서울 (Seoul): 이산 (Isan).
- 백승욱 (Baek, Seung-wook). 2011. “중국 지식인은 ‘중국 굴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Jungguk Jisikin-eun Jungguk Gulgi'-reul Eotteoke Malhaneunga) 『황해문화』 (Hwanghaemunhwa) 가을호 (Fall): 303.
- 백승욱 (Baek, Seung-wook). 2012. “역사적 중간물 또는 ‘모로 서기’의 고독함과 곤란함: 첸리췌 선생에 대한 토론.” (Yeoksajeok Jungganmul Ttoneun 'Moro Seogi'-ui Godokham-gwa Gonranham: Qian Lichun Seonsaeng-e Daehan Toron) 한국중국현대문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Hanguk Jungguk Hyeondae Munhakhoe 2012nyeondo Chungye Haksul Daehoe), 『당대 중국의 문제를 새롭게 읽다: 첸리췌 선생 초청 특별 좌담회 자료집』 (Proceedings: Dangdae Jungguk-ui Munje-reul Saeropge Ilta: Qian Liqun Chenrichwin Seonsaeng Chochung Teukbyeol Jwadamhoe Jaryojip) 6월 23일 (23 June): 35-44.
- 성근제 (Seong, Geun-je). 2011. “왕후이는 타락하였는가?” (Wang Hui-neun Tarak Hayeotneunga?) 『동아시아브리프』 (East Asia Brief) 6(4): 114.
- 성근제 (Seong, Geun-je). 2012. “첸리췌: 지식인과 자유주의.” (Qian Liqun: Jisikin-gwa Jayujuui) 『동아시아브리프』 (East Asia Brief) 7(2): 181-197.
- 왕후이 (Wang, Hui). 2012. “충칭사건-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 (Chongching Sageon - Milsil Jeongchi-wa Sinjayu Juui-ui Gwontojungrae) 『역사와 비평』 (Yeoksa-wa Bipyong) 99: 160.
- 이종민 (Lee, Jong-min). 2012. “왕후이의 중국 개혁개방 서사에 대한 질의.” (Wang Hui-ui Jungguk Gaehyeok Gaebang Seosa-e Daehan Jilui) 『중국현대문학』 (Jungguk

Hyeondae Munhak) 61: 130.

- 이현정 (Lee, Hyeon-jung). 2012. “인민 내부의 모순과 루쉰식 자기부정.” (Inmin Naebu-ui Mosun-gwa Lu Xun-sik Jagi Bujeong) 한국중국현대문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Hanguk Jungguk Hyeondae Munhakhoe 2012nyeondo Chunggye Haksul Daehoe), 『당대 중국의 문제를 새롭게 읽다: 첸리췌 선생 초청 특별 좌담회 자료집』 (Proceedings: Dangdae Jungguk-ui Munje-reul Saeropge Ilta: Qian Liqun Seonsaeng Chocheong Teukbyeol Jwadamhoe Jaryojip) 6월 23일 (23 June): 26.
- 전리췌 (Qian, Liqun). 2012.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상)』 (Mao Zedong Sidae-wa Post Mao Zedong Sidae (Sang)). 서울 (Seoul): 한울아카데미 (Hanul Academy).
- 첸리췌 (Qian, Liqun). 2012. 『내 정신의 자서전(我的精神自傳)』 (Nae Jeongsin-ui Jaseojeon). 서울 (Seoul): 글항아리 (Geulhangari).
- 첸리췌 (Qian, Liqun) · 백승욱 (Baek, Seung-wook). 2012. “대재앙 낙인찍힌 문화혁명, 민중의 자발성 과감한 재평가를.” (Daejaeang Nakin Jikhin Munhwa Hyeokmyeong, Minjung-ui Jabalseong Gwagamhan Jaepyeongga-reul) 『경향신문』 (Kyunghyang Sinmun) 9월 19일 (19 September).
- 汪暉 (Wang, Hui). 1998. “當代中國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Dangdai Zhongguo De Sixiang Zhuangkuang Yu Xiandaixing Wenti) 『文藝爭鳴』 (Wenyi Zhengming). 6: 16.
- 汪暉 (Wang, Hui). 2008. “去政治化的政治, 霸權的多重構成與六十年代的消逝.” (Qu Zhengzhihua De Zhengzhi, Baquan De Duochong Goucheng Yu Liushi Niandai De Xiaoshi) 『去政治化的政治』 (Qu Zhengzhihua De Zhengzhi). 北京 (Beijing): 三聯書店 (Sanlian Shudian).
- 汪暉 (Wang, Hui). 2010. “中國崛起的經驗及其面臨的挑戰.” (Zhongguo Jueqi De Jingyan Ji Qi Mianlin De Tiaozhan) 『文化縱橫』 (Wenhua Zongheng) 2: 24-35.
- 汪暉 (Wang, Hui). 2011a. “上昇期の矛盾, 體系性危機與變革方向.” (Shangshengqi De Maodun, Tixixing Weiji Yu Biange Fangxiang) 『21世紀經濟報道』 (21 Shiji Jingji Baodao) 12月30日 (30 December).

- 汪暉 (Wang, Hui). 2011b. “再問‘什麼的平等?’” (Zai Wen Shenme De Pingdeng) 『文化縱橫』 (Wenhua Zongheng) 5: 66.
- 汪暉 (Wang, Hui). 2011c. “中國道路1的獨特性與普遍性(上).” (Zhongguo Daolu De Dutexing Yu Pubianxing Shang) 『社會觀察』 (Shehui Guancha) 4: 13.
- 汪暉 (Wang, Hui). 2011d. “中國道路的獨特性與普遍性(下).” (Zhongguo Daolu De Dutexing Yu Pubianxing Xia) 『社會觀察』 (Shehui Guancha) 5: 11.
- 錢理群 (Qian, Liqun). 2011. “回顧2010年.” (Huigu 2010 Nian)
<http://www.howvc.com/Html/economy/macro/china-road/86994158773162.html>(검색일: 2012.10.04).
- 錢理群 (Qian, Liqun). 2012. 『毛澤東時代和後毛澤東時代(下)』 (Mao Zedong Shidai He Hou Mao Zedong Shidai Xia). 臺北 (Taipei): 聯經 (Lianjing).
- 賀桂梅 (He, Guimei). 2010. “作為方法與政治的 整體觀-解讀汪暉的中國問題論.” (Zuowei Fangfa Yu Zhengzhi De Zhengtiguang - Jiedu Wang Hui De Zhongguo Wenti Lun) 『天涯』 (Tianya) 4: 200.
- 黃壽松 (Huang, Shousong) · 武晟 (Wu, Sheng). 2012. “轉型中的民主與中國化意識-新左派知識分子關於中國政治體制改革的言說 述評.” (Zhuanxing Zhong De Minzhu Yu Zhongguohua Yishi - Xin Zuopai Zhishi Fenzi Guanyu Zhongguo Zhengzhi Tizhi Gaige De Yanshuo Shuping) 『現代哲學』 (Xiandai Zhexue) 5: 48.
- 許紀霖 (Xu, Jilin). 2011. “近十年來中國國家主義思潮之批判.” (Jin Shi Nian Lai Zhongguo Guojia Zhuyi Sichao Zhi Pipan) 『思想』 (Sichao) 18.
<http://www.aisixiang.com/data/41945.html>(검색일: 2012.10.04).
- 許紀霖 (Xu, Jilin). 2012. 『啓蒙如何起死回生』 (Qimeng Ruhe Qisi Huisheng). 北京 (Beijing): 北京大學出版社 (Beijing Daxue Chubanshe).
- 許紀霖 (Xu, Jilin) · 羅崗 (Luo, Gang). 2007. 『啓蒙的自我 瓦解-1990年代以來中國思想文化界重大論爭研究』 (Qimeng De Ziwu Wajie - 1990 Niandai Yilai Zhongguo Sixiang Wenhua Jie Zhongda Lunzheng Yanjiu). 201 p. 長春 (Changchun):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Jilin Chuban Jituan Youxian Zeren Gongsi).

ABSTRACT

On the New Separation of Chinese Intellectual Society: Example of Separation between Qian Liqun and Wang Hui

LEE Wook-Yon

Professor
Sogang University

For understanding the new trends of Chinese intellectual society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plored the separation between Qian Liqun and Wang Hui, who are typical critical intellectual in China. The separation between Qian and Wang began with Qian criticized Wang Hui as nationalist and pro-CCP. Qian and Wang were very familiar with each other and were closely related in thought in the 80's and 90's, but they have separated in view how see the meaning of the legacy of Mao's era and how understand of the function of CCP and Chinese government. This study pointed out Qian considered China's problem as the legacy of Mao's, contrastively Wang considered it as the capitalized and marketed China.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 the separation of the two critical intellectuals.

Keywords: Qian Liqun, Wang Hui, Mao Zedong, Chinese Intellectual, New Left